

야시마의 소금 만들기

세토 내해 주변은 옛날부터 소금 산지로서 유명한데, 그중에서도 가가와현에서 생산하는 소금은 그 풍부한 맛과 미네랄 함량으로 지금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가가와현으로 불리고 있는 지역은 이웃 지역과 더불어 야요이 시대 중기(기원전 100 년~기원후 100 년)부터 소금을 생산해왔습니다. 야시마에서 소금 만들기가 시작된 때는 야요이 시대 후기(기원후 100~300 년)로서 세토 내해의 바닷물을 질냄비에 끓여 소금을 얻었습니다. 야시마 서해안에 있는 우로 지구에서는 지금도 우노하 신사 등지에서 제염용 토기 파편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에도 시대(1603~1867) 중기가 되면 염전을 이용한 대규모 제염이 이루어지게 되며, 당시는 바다 가운데에 있었던 야시마의 남서부 해안을 매립하여 염전으로 만들었습니다. 야시마 주변의 전통적인 제염업은 20 세기에 들어 서서히 쇠퇴하였고, 마지막 염전은 1971 년에 폐쇄되었습니다. 그러나 가가와현의 다른 지역에서는 더 현대적인 방법으로 지금도 소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